

5·18 블랙코미디 '짬뽕' 절찬리 공연



연극 '짬뽕' 한 장면.

극단 산 제공

극단 '산' 연극 제작 20주년 기념

내달 2일까지 대학로 물빛극장서 광주 한 중국집 춘래원 무대배경 군부독재 모르는 '소시민의 일상'

1980년 5월 광주의 한 중국집 '춘래원'. 중국집 주인 '신작로'는 10년 동안 고생해 마련한 '춘래원'에서 그저 식구들과 소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어느 날 중국집으로 짬뽕 돌, 짜장 하나, 탕수육 하나를 배달 시키는 주문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시위 진압 명령을 받고 광주로 내려온 군인들의 주문이었는데,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이라며 공짜로 음식을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린다. 배달 직원 '만식'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결국 총까지 발사된다.

그날 저녁 방송에서 폭도들이 군인들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광주 도심은 알 수 없는 일들로 소란스럽다. 춘래원 식구들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 바깥 상황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드는데...

극단 '산'은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연극 '짬뽕'을 오는 6월 2일까지 대학로 미마아트센터 물빛극장에서 선보인다. 연극 '짬뽕'은 2004년 초연 이후 제작 20주년을 맞이한 작품으로 비극적 참상이 벌어진 1980년 광주의 상황을 블랙코

미디 관점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연극 '짬뽕'의 주인공들은 중화요리 음식점 식구들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짬뽕' 한 그릇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다고 굳게 믿는다. 연극은 정확한 사건 내막을 알지 못하는 소시민의 일상을 그려낸다.

특히 감각적인 시나리오, 베테랑 배우들의 걸출한 호연 등이 어우러져 명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상천외한 상상력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으나 평범한 일반인들이 주인공으로 활약한다는 점, 계엄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이색적이다. 영문도 모른 채 계엄 상황에 휘말린 광주 소시민들의 입장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표현하며 2004년 초연 이후 20년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20주년 기념공연에는 오랫동안 주인공 '신작로'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최재섭과 '이병' 역과 '만식' 역을 거쳐 '신작로'에 도전하는 배우 이원장, '범죄도시1, 2', '더 글로리'의 냉담썸으로 유명한 허동원 배우가 주인공 '신작로'로 열연한다. 특히 연극 '짬뽕'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7년간 주인공 '신작로'로 열연해 온 배우 김원해가 15일과 18일 양일간 연극 '짬뽕' 무대에 올라 특별출연으로 열연을 펼친다.

극단 산은 아픈 우리 현대사를 기억하는 노력으로 세월호 10주년을 맞아 22일 개봉하는 영화 '목화숨 피는 날'의 영화 티켓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 50%로 할인 행사(전화예약 후 현장에서 티켓 제시)를 진행하고 짬뽕 공연장 내 설치된 영화 '목화숨 피는 날' 포스터와 '짬뽕' 포스터가 함께 찍힌 사진을 SNS에 업로드 후 제시할 경우에도 50% 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대학로 소재 '중국집 만리성'에서 식사를 한 뒤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극 배경이 중화요리 식당 '춘래원'이라는 점에 기인해 기획된 이벤트다. 또 연극 짬뽕 공연 20주년을 맞이해 함께 한 배우들의 인터뷰를 담은 '연극 짬뽕 20주년 기념 프로그램'도 공개된다.

극단 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연극 '짬뽕'을 20년에 걸쳐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을 오래 기억하고 아픈 역사의 중심에서 서 있던 소시민들의 삶을 어루만지기 위해 지속적인 공연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과 네이버 등을 통해 가능하다.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7시, 일요일 오후 3시에 공연이 예정돼 있다. 월요일에는 공연이 없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5·18 특별 코스 '광주여성길' 투어

내일 남구 양림동서

광주여성가족재단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대표 시민 프로그램 광주여성길 도보투어를 오월과 관련한 코스로 특별 진행한다. 이번 특별 코스는 오는 18일 남구 양림동에서 광주여성길 도보투어에 이어 주먹밥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광주여성길' 도보투어는 광주 근대 여성들의 발자취를 성평등 관점에서 재조명해 해설하는 시민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남구 양림동과 동구 충

장로 일대에 총 3개의 '광주여성사 길'을 발굴했다. 현재 △두릅길 △백단심길 △홍단심길 등 총 3개 길을 개발, 시민 대상으로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중에 있다.

이번 5·18 44주년 특별 코스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광주여성길 1코스(두릅길)에 남구 양림동에 있는 '오월어머니집'이 포함된다.

특히 주먹밥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광주여성길 도보투어 프로그램은 총 4회(오전 10시 30분, 낮 12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준비돼 있다. 도선인 기자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꿈의 향연' 공연 개최

23일 남구 유안초등학교 30일 화천기공 하남공장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은 지역 초등생~고교생으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가 오는 23일과 30일에 야외 연주회 '꿈의 향연' 공연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5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 맞춰 전국 각 지역의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극비사업에 선정돼 지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23일 유안초등학교에서 '신나는 오케스트라 운동장 연주회'를, 30일 (주)화천기공 하남공장에서 '퇴근길 쉼 콘서트'를 열고 클래식 명곡과 영화음악 등 다양한 음악 총 9곡을 연주한다.

올해로 12년 차인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는 관내 18개의 초등학교, 10개의 중학교에서 모인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69명의 단원들이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등

9개 파트의 악기를 연주한다. 현재 음악감독과 강사를 포함해 총79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또 2024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모델 개발형 프로그램' 교류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무안군청, 고창문화원과 함께 '따로 또 같이 뮤지캠프인' 합동 캠프를 8월에 진행 예정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및 '꿈의 향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및 담당자(062-670-50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아 기자

'전라도 예향' 진수... 연희예술공간 타:놀이 공연

내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여섯 번째 토요일상설공연 무대로 연희예술공간 타:놀이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타:놀이는 '전라도 연희'의 옛 명성과 본질을 찾고자 예향의 도시 빛고를 광주에서 전통타악·연희 공연을 선보이며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은 꿩고리, 징, 장구, 북, 소고, 태평소 등의 악기연주에 제의적·군사적·놀이적·노동적·음악적·무용적·연극적 요소를 더한 악가무희(樂歌舞戲)다.

공연은 문굿으로 시작을 알리며 호남의 타악, 연희극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어 △길놀이로 판을 여는 '축원고사덕담-마당 밝이 굿(소리)' △영무장농악권의 호남 우도농악가락과 기존 사물놀이 중 호남농악가락(사물놀이)의 작품을 재구성한

'호남우도농악가락(앉은반 사물놀이)' △화려한 장단 놀음과 엇붙임, 코치기, 돌음과 율림 등 경쾌한 디딤새와 윗 놀음인 채발림과 고깔치기와 좌우새가 특징인 '우도 고깔설장구' △정교한 고개 동작으로 부포꽃을 피고 지게하는 '우도 부포놀이' △농악의 북보다는 작고 소고보다는 큰 중북으로 전남 해안지역 완도 금당도에서 행해지던 놀이를 서한우류로 완성한 '서한우류 버구춤' △자진모리, 굿거리, 동살풀이 구성으로 이루어진 '박병천류 진도복춤'이 준비돼 있다. 마지막 연희자와 관객 모두 함께 하는 '대동합굿'으로 공연 막을 내린다.

전통문화관은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이라는 슬로건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절기 관련 체험 및 연희·민속놀이, 한복 체험, 전통 예술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일러스트부터 민화까지... 한국무등아트협회 회원전

22일까지 무등갤러리

한국무등아트협회가 창립 48주년을 맞아 16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제27회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디지털 일러스트, 서양화, 한국화, 서예, 사진, 민화 등 융복합시대와 문화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출품 회원은 박근수, 서원길, 김홍식, 황운수, 박순덕, 강맹순, 정기문, 정원석, 서경애, 정연심, 이맹자, 최승우, 박숙자, 정기석, 장복자, 마혜경, 임재율, 김지영, 조주옥, 이경현, 황효선, 임동희, 배수정, 김규린, 김우진씨 등 25명이 다채로운 화풍의 작품 70여점을 선보인다.

무등아트오늘회는 1976년 1월 당시 전남매일신문 디자인실장을 맡고 있던 서원



마혜경 작 해바라기.

길씨가 광주지역 디자이너들과 뜻을 모아 '무등그래픽디자인회'로 창립했으며 그 해 4월 광주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가졌다.

특히 이 단체는 그래픽 디자인이 생소한 무렵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산과역할을 수행해 왔다.

단체는 1990년대 후반 17번째 전시를 끝으로 휴식에 들어갔다가 2015년 '무등

그래픽서화오늘전회'로 이름을 바꾸고 18번째 회원전을 열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목포와 순천에서 각각 순회전을 열었고 2019년부터 '무등아트오늘회'로 이름을 다시 바꾼 광주에서 매년 회원전을 열었다. 그러다 올해부터 회 명칭을 '한국무등아트협회'로 변경해 첫 전시회를 마련했다.

정기석 한국무등아트협회장은 "1976년 창립 이래 우리는 예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이를 사회 전파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이번 27회 회원전은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자리다"고 말했다.

이어 "각 작품마다 독특한 이야기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현대 예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선인 기자